



김경선 연구위원

## 요약

-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격리상황 증가는 반려동물 입양을 확대하고 있으나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저조함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자택격리와 재택근무 증가로 인해 반려동물 입양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시장 또한 성장이 예상됨
  - 반려동물 고령화와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 등으로 소비자의 반려동물 의료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은 0.25%로 저조한 상황임
- 최근 IT기술을 활용하여 반려동물보험 공급의 장애요인을 해소하려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으며, 이는 반려동물보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인슈어테크를 중심으로 반려동물의 내장형 식별장치 등록에 대한 대안으로 반려견의 코주름을 이용한 비문(鼻紋)인식, 홍채인식, DNA인식 등을 활용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기 위한 시도가 나타나고 있음
  - 또한 동물병원 진료비를 비교할 수 있는 가격비교 플랫폼이 등장하였으며, 이는 보험계약자와 동물의료기관 간 정보의 비대칭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한편 반려동물보험에 대한 리워드형 플랫폼은 보험계약자의 도덕적 해이를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반려동물의 건강증진을 통해 손해율을 낮출 유인을 제공할 수 있음
- 한편 앱(App) 기반의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의 접근성 제고 및 서비스의 확장, 반려동물보험에 대한 홍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다고 판단됨
  - 반려동물보험의 비교, 가입 및 보험금 청구까지 가능한 금융 플랫폼은 디지털 네이티브인 젊은 소비자들에게 반려동물보험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줄 수 있음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서비스를 선호하는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반려동물의 비대면 의료상담, 문진, 보험금 청구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반려동물보험을 공급하는 보험회사들은 소비자에게 다양한 반려동물 보험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인슈어테크 기업과 제휴하거나 기술을 내재화 하는 등 IT기술과 디지털 플랫폼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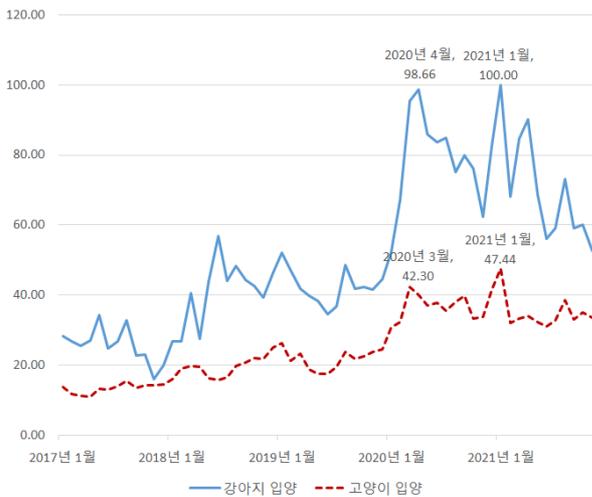


# 1. 서론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자택격리와 재택근무 증가로 인해 반려동물 입양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시장 또한 성장이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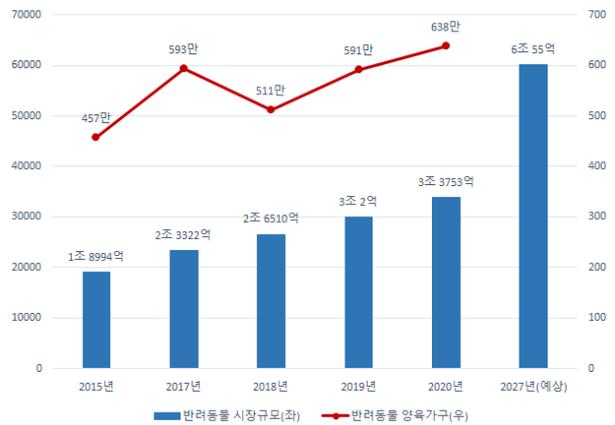
- 최근 ‘팬데믹 퍼피(Pandemic puppy)’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반려동물 입양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 위험에 따른 격리(Quarantine) 상황에서 강아지가 외로움과 불안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임
  - 반려동물(강아지·고양이)의 입양에 대한 인터넷 검색량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대폭 증가했던 2020년 3월과 2020년 12월 전후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임(그림 1) 참조)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반려동물 양육가구를 전체 가구의 27.7%에 해당하는 638만 가구로 추정하였으며, 이는 2019년(591만 가구)보다 47만 가구가 증가한 수치임
  - 반려동물 양육가구 중 반려견은 521만 가구에서 602만 마리(81.6%)를, 반려묘는 182만 가구에서 258만 마리(28.6%)를 양육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반려동물 연관산업 시장규모가 2017년 2조 3,322억 원에서 2020년 3조 3753억 원까지 증가하고 2027년에는 6조 원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하였음<sup>1)</sup>

〈그림 1〉 반려동물 입양 네이버 상대 검색량 추이<sup>2)</sup>



자료: 네이버 데이터랩(<http://datalab.naver.com/>)

〈그림 2〉 반려동물 연관산업 시장규모 및 양육가구 추이 (단위: 억 원) (단위: 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1. 4. 23), “전국 638만가구에 서 반려동물 860만마리 키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반려 동물 연관산업 발전방안 연구」

1) 지인배 외(2018), 『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상대 검색량(RSV)은 조회기간 내 최대 검색량을 100으로 놓고 해당 단어의 상대적인 검색량 변화를 나타냄

- 반려동물 고령화와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 등으로 소비자의 반려동물 의료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은 저조한 상황임
  - 의료기술의 발달로 반려견의 수명은 평균 15~20세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진료비 부담이 큰 8세 이상의 노령견이 전체 반려견의 50%에 육박하는 가운데,<sup>3)</sup> 82.9%의 소비자가 동물병원 진료비가 부담된다고 응답하였음<sup>4)</sup>
  - 동물병원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보험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나, 2020년 국내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은 0.25%로<sup>5)</sup> 스웨덴(40%), 영국(25%), 일본(6%) 등 타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준임<sup>6)</sup>
  - 한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2020년 10월 소비자행태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자의 60%가 향후 반려동물보험 가입(갱신) 의향이 있다고 답하는 등 반려동물보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최근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고도화된 IT기술을 활용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으며, 본 보고서에서는 반려동물보험과 관련한 인슈어테크 활용 사례를 살펴보고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한 IT기술 및 디지털 플랫폼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 2. 반려동물보험 현황과 과제

- 최근 반려동물의 입양 증가 및 연관사업의 성장과 함께 국내 보험회사들의 시장참여가 과거에 비해 크게 확대됨
  - 2008년 동물보호법 시행으로 보험회사들이 반려동물보험을 출시하였으나 경험통계 데이터 부재 및 정보 비대칭 문제로 인한 손해를 심화로 판매를 중지한 바 있으며, 이후 2013년 동물등록제를 의무화하는 개정 동물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일부 보험회사들이 반려동물보험을 재출시함
  - 최근 반려동물보험 수요증가를 기대하는 보험회사들의 적극적인 시장참여가 이루어지면서 2017년 3개사에 불과했던 반려동물보험 판매 보험회사가 2020년 9곳으로 확대됨<sup>7)</sup>
- 그러나 반려동물보험 가입 시 개체 식별 및 연령 판별에 활용될 수 있는 반려동물의 내장형 등록률은 저조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반려동물보험 가입 시 요구되는 반려동물의 사진만으로는 완벽한 신원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동물등록은 무선식별장치(내장형·외장형)와 등록인식표 형태로 가능한데,<sup>8)</sup> 인위적인 조작이 불가능한 내장형으로

3) 이화영 외(2017),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 진료비 부담 완화 방안연구 보고서』, 농림축산식품부

4) 한국소비자연맹 보도자료(2021. 11. 24), “동물병원 1회 평균 진료비 84000원, 소비자 진료비 부담 커”

5)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1. 5. 25), “반려동물(640만 가구), 레저·일상 등 일상생활의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소액단기보험이 활성화됩니다”

6) 조정훈 의원실 자료(2021. 2. 3), 「펫팜족을 위한 서울」

7) 반려동물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는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에이스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으로 9곳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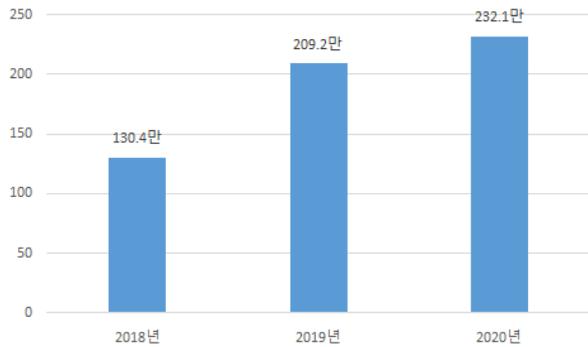
8) 2021년 2월 12일부터 동물등록은 무선식별장치(내장형·외장형) 방식으로만 가능함

신규 등록된 반려견은 58.9%에 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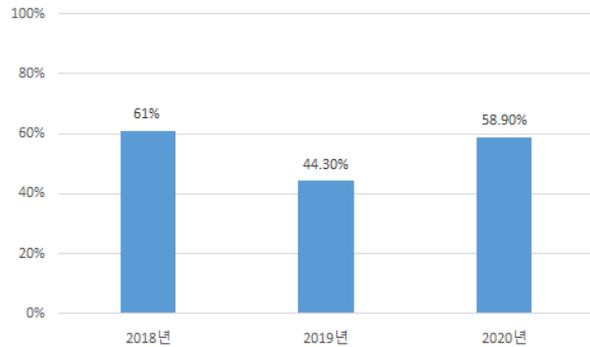
- 반려견의 등록 마리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2020년 내장형 신규 등록 비율은 2018년 대비 오히려 감소하였으며, 반려묘는 등록 의무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의 도덕적 해이를 통제하기 더 어려움

〈그림 3〉 반려견 등록 누계 현황

(단위: 만 마리)



〈그림 4〉 연도별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신규 등록 비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1. 5. 18), “2020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1. 5. 18), “2020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 보험계약자와 동물병원 간 진료비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하고, 진료비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점 또한 보험상품 개발에 장애가 되고 있음

- 동물병원마다 진료비 결정 방식이 다르고 과잉진료 가능성이 존재하여 진료비 예측이 어려우며,<sup>9)</sup> 이에 따라 합리적인 보험료와 보상한도 산출에 어려움이 있음
- 최근 소비자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 고지의무 및 진료 표준화를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나,<sup>10)</sup> 표준수가제 도입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존재하고 단기간에 실현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 3. 반려동물보험과 인슈어테크의 연계

- 최근 인슈어테크를 중심으로 반려동물의 내장형 식별장치 등록에 대한 대안으로 반려견의 코주름을 이용한 비문(鼻紋)인식, 홍채인식, DNA인식 등을 활용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기 위한 시도가

9) 권용수(2021), 『반려동물 보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법 과제 검토』, 법조협회, 제70권, 제1호; 이에 따르면 동물병원 간에 동일한 진료 행위에 대한 진료비가 무려 80배나 차이가 나는 항목도 있음

10)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1. 12. 9), “동물 소유자의 알권리와 동물진료 발전의 위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 나타나고 있음

- 실효성 있는 반려동물 등록이 저조한 이유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에 대한 부작용 우려가 꼽히는데,<sup>11)</sup> 과학기술을 활용한 대안들이 제시됨
  - 국내 인슈어테크 기업 펫나우(Petnow)는 인공지능 객체 인식기술을 바탕으로 비문을 인식해 개체를 식별하는 앱을 개발하였고, 에브리펫(Everipet)은 반려동물 비문 인식기술을 보험개발원의 ‘반려동물원스톱진료청구시스템(POS)’에 적용함
  - 핏펫(FitPet)은 기존 보험회사와 모바일을 활용한 반려견 비문 인식 솔루션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더 나아가 비문 인식 기술력과 반려동물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단종보험회사 설립을 준비 중임
    -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sup>12)</sup>으로 소액단기보험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이므로, 인슈어테크 기업의 반려동물 보험시장 진출이 기대됨
- 또한 동물병원 진료비를 비교할 수 있는 가격비교 플랫폼이 등장하였으며, 이는 보험계약자와 동물의료기관 간 정보의 비대칭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직접적인 진료비 비교는 동물병원 간 자유경쟁을 유도하고, 표준수가제 부재 상황에서도 진료비 적정화 및 예측 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 펫프라이스(Petprice)는 동물병원 진료비 비교 견적 및 진료비페이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플랫폼에 축적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반려동물 보험상품이 개발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진료비 비교 견적 서비스에 참여하는 동물병원과 제휴하여 진료비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보험상품의 손해율을 관리할 수 있음
- 한편 반려동물보험에 대한 리워드형 플랫폼은 보험계약자의 도덕적 해이를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반려동물의 건강증진을 통해 손해율을 낮출 유인을 제공할 수 있음
- 리워드형 커뮤니티 플랫폼은 반려동물의 건강증진 활동 미션을 완수한 보험계약자에게 반려동물 장난감, 간식 등을 구매할 수 있는 포인트 형식으로 리워드를 제공함<sup>13)</sup>
    - 스몰티켓(Smallticket)은 반려동물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미션 달성과 보험금 청구율에 따라 리워드를 제공함
  - IT기술과 GPS 등을 활용한 위치기반서비스를 바탕으로 반려동물의 활동데이터를 분석하고, 보험과 반려동물 헬스케어를 결합한 입체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 이러한 서비스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입 후 반려동물 건강증진 활동에 소극적이 되거나 불필요한 동물병원 이용을 늘리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음

11) 김현중·이정민·이형용(2019), 「반려동물 생애주기별 관리를 위한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2)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1. 5. 25), “반려동물(640만 가구), 레저·일상 등 일상생활의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소액단기보험이 활성화됩니다”

13) 권용수(2021), “반려동물 보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법 과제 검토”, 법조협회 제70권 제1호; 이에 따르면 리워드를 제공하는 플랫폼 운영은 특별이익 제공을 금지하는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현재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4. 시사점

- 최근 반려동물의 입양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보험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보험회사는 정보 비대칭성, 표준 진료비 부재 등의 문제로 보험료와 보장범위의 측면에서 소비자가 만족할 만한 반려동물보험을 제공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코로나19 이후 디지털화가 촉진되는 가운데 IT기술을 활용하여 반려동물보험 공급의 장애요인을 해소하려는 시도는 반려동물보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 비문인식, 홍채인식, DNA인식 등 다양한 개체 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반려동물 등록에 대한 거부감을 낮출 수 있음
  - 동물병원 진료비 비교 견적 플랫폼은 반려동물의 질병별 진료비 비교 및 모니터링을 통해 보험금 규모 추정에 활용될 수 있음
  - 리워드형 커뮤니티 플랫폼은 반려동물의 건강관리를 장려하여 보험계약자의 도덕적 해이 완화 및 보험상품 손해율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한편 앱(App) 기반의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의 접근성 제고 및 서비스의 확장, 반려동물보험에 대한 홍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다고 판단됨
  - 반려동물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성향은 특히 Z세대에서 두드러지므로<sup>14)</sup> 젊은 연령층이 반려동물보험의 주요 고객이 될 것으로 기대됨
  - 펫핀스(PetFins)와 아이펫(Ipet)은 국내 출시된 반려동물보험의 비교, 가입 및 보험금 청구까지 가능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하였으며, 이러한 금융 플랫폼은 디지털 네이티브인 젊은 소비자들에게 반려동물보험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줄 수 있음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서비스를 선호하는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반려동물의 비대면 의료상담, 문진, 보험금 청구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반려동물보험을 공급하는 보험회사들은 소비자에게 다양한 반려동물 보험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인수어테크 기업과 제휴하거나 기술을 내재화 하는 등 IT기술과 디지털 플랫폼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14)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2019), 「반려동물 관련 인식 조사」